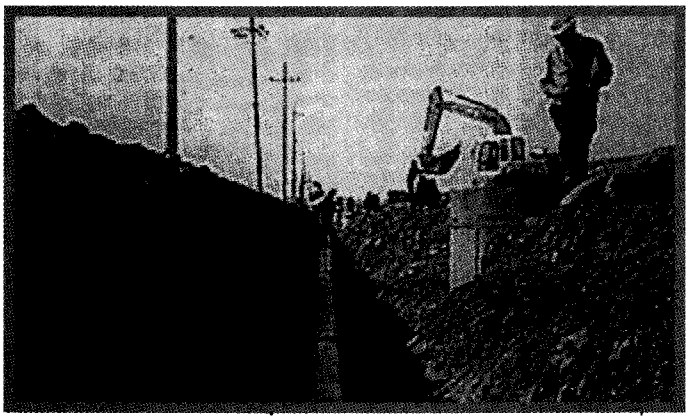
도시가스간 지역독점 과감히 허물어야



기업간 매수·합병이 예상되고 있는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향후 외국기업참여 등으로 경영변화가 예상된다.(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현장)

국내 가스시장은 도입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도매업자)와 LNG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소매업자)로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가격 체계도 도매와 소매로 구분되고 지난해 10월부터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다.

국내 가스산업은 핵심인 공급배관망이 단일 체계로 이뤄져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구조보다 잘 짜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NG를 저장하는 생산기지도 평택과 인천 두 곳에 집중되어 있고 3기지로 통영생산기지가 2002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우선 가스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볼 때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LNG생산기지, 단일망 공급배관이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는 구조개편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저장 설비를 하나로 묶고 배관망을 하나로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시장 논리를 도입하려한다면 과점이나 완전 경쟁을 촉발 할 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설비별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역별 구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쟁을 위한 시장 구조개편을 이룬다는 명분을 갖기에는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시장 형태로 본다면 도입부문에 경쟁이 이뤄지고 소매사업에 지역적 시장 구조를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다.

가스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새로운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국내 대기업, 외국기업들의 행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와함께 각 도시가스사들도 여력을 갖춘다면 도매업이나 지역난방등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

공정위 … 2001년부터 소매경쟁키로 향후 M&A등 시장 대변화 예고

다.

정부는 지역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2001년부터 경쟁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역별로 공급독점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도시가스 분야에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초 도시가스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소매사업자 경쟁촉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가스공급은 전형적인 넷(net·망) 사업 형태로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개선하지 않는 한 독점체제가 깨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에 대한 도·소매사업자에 경쟁방안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오는 6월말께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시행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경쟁방안이 마련될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독점을 통해 지역기반을 둔 영업 전략에서 시장경쟁에 의한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경쟁체제는 지역독점체제를 과감히 허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현재는 각 시·도에 지역 도시가스형태로 사업자간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자율적인 시장 진입과 경쟁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지역독점이 계속 유지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독과점형태의 시장 변화다. 대기업 그룹간 경쟁으로 도시가스사를 매각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룹에 편입하는 매수 합병이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일부 대기업에 의한 시장변화는 현재의 시장보다 지역적 독점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도시가스사업이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지역적인 시장형성 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의 질에 따라 서비스권역이 나눠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구조개편 등으로 공급권력의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시가스사업은 도매사업자는 물론 소매사업자, 기타 비가스기업까지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시장형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도시가스사업자가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로 한마디로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다가올 2000년의 시장개편의 바람은 거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체제로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느냐가 향후 시장변화 판도를 미리내다 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